

“사찰 운영 투명화, 불교 발전의 밑거름”

봉은사 운영백서 발간...2007년부터 현황 담아

봉은사가 사찰에서 이례적으로 운영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운영백서에는 △수행 △기도 △법회 △포교 △교육 △총무행정 △봉사 △신도회 △불교문화행사 △사회공헌 △스텝플레이스 △재정 등 중장기 계획의 성과와 현황, 향후 계획 등이 담겼다.

봉은사 중장위향 기도 정신 효과

먼저 봉은사는 백서 첫장에 봉은사 수행공동체 복원에 대해 설명했다. 봉은사 측은 “봉은사 변화의 핵심가치는 ‘수행’이었다”며 “주지스님을 포함한 모든 대중 스님들이 조석예불, 율령, 법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매일 실천해나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봉은사 측은 ‘봉은사 중장위향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봉은사 천일기도는 前 주지 명진 스님의 발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동안거 결제와 함께 시작돼 2009년 8월 30일 회향됐다. 봉은사는 천일기도에 맞춰 중장위향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전통사찰 가람정비 △신도조직 활동강화 △해외포교 전진도량 건설 △이웃과함께하는 대사회활동 △도심포교 프로그램 실시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중무행정 공개와 전산화

를 통한 현대화 작업도 함께 실시했다.

이에 이어 진화 스님은 주지로 취임하며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를 위한 천수다라니 동송 3년 대정진’을 진행했다. 진화 스님은 2011년 9월 3년 6개월의 기간을 목표로 천수다라니기도에 입재했다. 현재 천수다라니기도 총동참자는 4763명으로 연인원은 55950명에 달한다.

직장인 라이프 맞춤 일요법회 활성화

봉은사의 변화 중 하나는 일요법회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007년부터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 이념에 맞게 수행 중심의 법석을 마련했다. 특히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선교율대법회는 일요법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선교율법회에는 고우, 무비 스님 등이 직접 법사로 나서기도 했다. 2007년~2009년 평균인원이 1000명 이내였던 봉은사 일요법회는 선교율법회 실시 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

봉은사는 이번 운영백서에서 매회 일요법회 참석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실기도 했다.

봉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요법회의 남녀 비율은 3:7로 여성신도의 비율이 높았다. 또 30~40대 비율은 줄고



봉은사가 최근 발간한 2007~13년 운영백서

중창기도·봉사 현황 및 과제 제시
기도비·신도증강 현실 외부 공개
운영 노하우, 비전 등 함께 담아
사찰 사업연속성 높이는데 큰 기여

50~60대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일요법회 시행에도 주된 참여층은 주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공개 예산 증가...주지교체기 감소

봉은사는 재정부분에서 2006년부터 전체 세입 현황을 소상히 공개했다. 2006년 봉은사 전체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0만원이었는데 특별수입 등의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액은 77억 5100만원이었다. 2012년에는 실제 수입액이 131억 1300만원으로 약 69.1%가 증가했다. 연

도별로는 2007년 16.1% 증가, 2008년 12.2% 증가, 2009년 11.6% 증가, 2010년 1.6% 감소(주지 교체 갈등), 2011년 9% 증가, 2012년 8.5% 증가를 기록했다.

봉은사 측은 “이러한 재정 증가는 봉은사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재정기여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봉은사 재정이 안정되려면 주지 스님 교체기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백서 발간으로 사업 연속성 기대

운영백서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봉은사의 대소사 현황과 계획을 담은 사업연속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서 사찰운영에 대해 공개한 경우가 드문 이유는 신도 및 세입 증감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찰운영 투명화가 신도신뢰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사찰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봉은사 200년 역사에서 7년이란 세월은 한 바가지의 물에 불과하지만 그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순간의 찰나에서 영감을 보기 위해 이 백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천불교승가회 소속 20여 스님은 11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부기관 선거 개입, 現정부 참회하라”

조계종 실천승가회, 28일 조계사서 시국선언 발표

‘민주 수호’ 1012명 서명
‘국정원 엄중 수사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범’

“수행자로서 제방 도량에서 정진해야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오롯이 지켜지며 국민 대통합을 통해 한국사회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1천여 조계종 스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는 11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 앞서 前 교육원장 정화 스님은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종교인도 잘못이 있으면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불법 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 된

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 1012명이 연명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과급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민의를 왜곡하는 사건 등을 보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한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국가기관 동원된 불법선거운동의 과정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참회할 것 △불법선거 개입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이념을 조장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불교 활동가 모인 ‘협동조합’ 출범

불교계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지적 콘텐츠를 양산하는 ‘지지(智止) 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지식협동조합 ‘지지’ (이사장 김경호)는 11월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창립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지지협동조합은 프로젝트형 정책생산, 사회적 조직 창업, 사업기획 및 전략 수립 컨설팅, 대외프로포절(제안) 개발, 프로젝트 관리·운영 서비스, 기념·개인출판 기획, 편집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지협동조합은 창립 후 첫 프로젝트로 ‘중단개혁 20년 타운미팅(대중공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미팅은 준비모임 1회, 타운미팅 1~3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제테이블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 대중의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종일 기자

문혔던 역사 僧將·僧役 재조명하다

조계종 불교사회학,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는 승장(僧將)과 승역(僧役)에 관련한 사료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29일 ‘호국불교 자료집1(승장 편)’ 수정·보완본과 ‘호국불교 자료집 2(승역 편)’을 발간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2년 조선시대 대를 작입대상 시기로 선정하고 휴정(休靜), 유정(惟政), 영규(靈圭), 처영(處英), 각성(覺性) 등 사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승장(僧將), 승통(僧統), 총섭(總攝)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2월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사료들과 사지류, 문집류 등에서 발견되는 승장관련 자료들을 묶어 ‘자료집 1(승장 편)’을 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수정·보완본은 2012년 발간 후 1년 동안 발굴한 자료를 수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자료집이다.

실제 연구소는 연구과정에서 기존의 유

명 승장 외에 법정, 학선, 준번 스님 등을 새로 찾았고, 임진왜란 당시 영규 스님과 함께 순국했던 스님들의 명단도 발굴했다.

이와 함께 발간되는 ‘자료집 2(승역 편)’은 승역(僧役)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군역, 역역, 잡역의 항목으로 나눠 수록했다.

연구소는 “임진왜란 당시 자발적으로 편성된 승군은 전투와 후방지역에서 뚜렷한 활약을 했다”며 “이러한 승군의 활동에 대해 국가 방위 차원에서 유용하다 인식됐고, 전란 후에 승역은 상례화 되고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향후 호국불교의 주요 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한국 호국불교자료집’ 발간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승역 중 증감에 대한 내용은 내년 간행할 3집에 수록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자료집 발간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호국불교자료집 1, 2’. 승장편과 승역편으로 나눠 구성됐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자료집 발간에 맞춰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12월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선 후기 승군제도와 승역연구’를 주제로 열린다.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를 주제로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의 승역’을 주제로 윤용출 부산대 교수가, ‘조선후기의 의승방편전의 징수와 승군’을 주제로 오경호 동국대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적 신뢰 위해 조계종 직선제 필요”

법음 스님, 재가연대 토론회사

“조계종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위해서 직선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직선제는 산중공의제에 접근 내지 치환, 종단 청정성 회복의 계기, 전 종도의 참여 가능, 다수 대중의 의견 반영, 계파 및 금권선거 예방, 당선자의 권위 확보, 사회적 신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법음 스님은 조계종 선거제도의 변화를 위해 대중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선거법의 변화를 위해 직선제를 제안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주최하고 교단자정센터가 주관

하는 ‘불교의 현대화’ 제2차 심포지엄 ‘계율의 현대화-대중공사와 조계종 선거법’이 11월 2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법음 스님은 “현 선거제도 가 종단계파, 권력구조, 문중 그리고 선거의 세속적인 부정 요소 개입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며 추대대 승려 만장일치제 직선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이 중에서도 한시적 직선제를 제안하며 “이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산중공의에 가장 부합하며, 가능한 다수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혜숙 기자

(사) 대한불교승가종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동참 감사의 인사말씀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설법하고 있는 석월인 종정 스님

귀의삼보하옵고
입동지절에 종도여러분들의 사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에서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서 5천여 훈련병들에게 위문품과 함께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사기진작을 북돋아 주는데 함께 동참하여 주신 종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위문법회를 병행하오니 종도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호국불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종도 여러분들의 사내에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1월 25일
종 정 석 월 인 화 남, 총무원장 법 수 합 장

- 동참 종도스님 -

- ◎ 종정 월인 대중사 ◎ 원로원장 해공 대중사 ◎ 원로의원 동하 대중사
- ◎ 원로의원 운성 대중사 ◎ (전)월인 문도장 법산 스님
- ◎ 종회의장 혜륜 ◎ 총무원장 법수 ◎ 포교원장 도안 ◎ 총무부장 도일
- ◎ 서울총무원장 정행 ◎ 부산총무원장 봉선 ◎ 대전총무원장 법지
- ◎ 울산총무원장 도성 ◎ 대구, 경북총무원장 지운 ◎ 경남총무원장 월곡
- ◎ 강원총무원장 부루나
- ◎ 성주암 주지 법등 ◎ 무량사 주지 고시근 법산 ◎ 일원사 주지 보련
- ◎ 고성 서래암 주지 법해 ◎ 재무원장 무착 ◎ 몽불사 주지 법관
- ◎ 문수사 주지 문수 ◎ 진불암 주지 무구 ◎ 보타암 주지 법전
- ◎ 용암사 주지 선궁 ◎ 총무원재직 무찰 ◎ 전혁란(구미) ◎ 정광 ◎ 혜전
- ◎ 보명 ◎ 범성 ◎ 묘전 ◎ 묘운 ◎ 묘주 ◎ 운정사 주지 도성 ◎ 도광
- ◎ 선조 ◎ 선견 ◎ 선웅 ◎ 혜언 ◎ 도안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
전화 : (051)556-0278, (051)552-8554 전송 : (051)556-8551